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탐색*

A Study on the Competency Enhancement of Music Teacher

김 미 숙**

Misook Ki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음악역량 육성을 위하여, 학교 현장 음악교사들의 관점에 따른 음악교사 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 설정을 위해서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에게 FGI를 실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역량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음악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방침과 참여형 수업 설계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음악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능력을 토대로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방향을 마련하고 역량 기반 직무연수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제어: 음악역량, 역량 강화, 음악교사,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 음악교사 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empowering the competency of music teachers based on the viewpoint of in-service music teachers prior to foster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by 2015 revised curriculum. Researcher conducted FGI (Focus Group Interview) with secondary music teachers to investigate their thoughts and opinion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music competencies was needed for defining clearly.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sic teacher, it should be provided for the practical operation policies and participatory instruction plans. Finally, the direction of re-education for development of competency based on the teaching abilities required by music teachers should be prepared, and vocation in-service training and promotion based on competencies should be strengthened.

Key words: music competency, competency reinforcement, music teacher,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competency of music teacher

* This research was funded by a 2019 research Grant from Sang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laughkim@smu.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25>

I. 서론

음악교사라는 용어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교사와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실기교사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관련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이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로, 정교사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자격증은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원, 교직이 개설된 대학에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학과 전공과목, 교생 실습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 ‘교원자격증’은 이처럼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임용고사를 합격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며 쌓아진 음악교사의 전문성은 임용고사를 통해서 높아지기도 한다. 중등 임용고사는 교육학적 지식과 전공 지식에 대한 심층적 지필 시험 외에도 지역에 따른 실기 시험, 면접을 실시하는 데,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수 인원을 선발한다. 임용고사를 위해 소요되는 긴 수험기간동안 중등 임용고사는 시험 과목을 통해 예비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립학교 임용 시에도 대부분의 교사는 중등 임용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듯 예비음악교사가 음악교사로 성장하기까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원양성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음악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하며 교사로서의 역량(competency)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지식기반의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지식을 깊게 알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는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양’보다는 ‘질’로 바꾸며 교육의 핵심을 역량을 증시하는 ‘역량중심교육과정’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 역량이 반영된 배경에는 ‘역량’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교육 변화가 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연구보고서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최근 10년여 동안 ‘미래 사회’ 또는 ‘21세기’라는 서두어와 함께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연구를 교육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5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포함시켰으며 현장 수업에 실제적으로 핵심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Lee, et al., 2009; Lee, et al., 2012; Lee, et al., 2014; Lee, et al., 2016; Han, et al., 2017; Hong, et al.,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생역량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Kim, et al., 2013; Namgung, et al., 2015; Yun, et al., 2016). 이렇게 정부산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도 연구소 중심으로 역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에서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의 개념, 특성, 비판적 쟁점 분석 등의 연구를 하였다(Ko, 2009; Park, 2009; Yun et al., 2007).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2007년 8월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온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밝힌 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도로 21세기 한국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10개 영역을 설정하였다(이광우 외, 2008).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Ryoo, 2012; Park, 2009; So, 2009; Lee, 2010)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6개 영역을 확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화된 후에도 이론적 쟁점과 실제적 쟁점 등 비판적 시각으로 역량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Roh, 2014; Paik et al, 2014; Yoon et al, 2016; Han et al, 2017, 2018; Hong, 2017).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불러온 교육의 변화는 경력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에게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음악교사가 역량중심교육과정에서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려면 이에 앞서 음악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연구(Koo, 2015; Choi, 2015; Choi, 2013)와 실천사례나 수업변화 중심의 분석 연구(Lee et al, 2017; Hong et al, 2014)가 있었지만 역량에 대해서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청취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013년 역량과 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사인식 연구(Chung et al, 2013)가 있었지만 2015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이었고 예비초등교사

의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교육요구(Choi, 2015)와 음악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이론적 고찰(Seog, 2016) 등이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주도로 역량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그에 따른 학술지 발표논문으로 음악교과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보다는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총론적 성격의 역량이 대부분이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외국 사례를 연구한 논문들도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의 역량 중심 교육현장 개혁, 변화, 적용에 대한 연구로서 총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각론적인 내용도 다른 교과의 연구였으며, 특히 음악교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Paik, 2014; So et al, 2007, 2013; Lee, 2012; Lim, 2016; Hong et al, 2010,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학생들의 핵심역량 육성에 앞서 음악교사들의 관점에서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탐색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음악교사에게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역량의 개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하고, 음악교사의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역량에 기반 한 면담을 통해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음악역량

1. 역량과 핵심역량

1997년 OECD 회원국들은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해서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한다는 것이었다(OECD, 2005, 3).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오늘날 사회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복잡한 상황에 마주칠 때 인간 개개인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각 방면에 해당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다. 역량은 단순히 지식과 기능 그 이상을 의미하고 특정한 맥락에서 발현되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복잡한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OECD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오늘날 역량이

왜 중요한가는 세계화와 현대화로 다양하게 급증하는 상호관계망의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인간 개개인은 변화하는 테크닉에 통달해야 하고 방대하고 가능한 정보를 다룰 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OECD, 2005, 5).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역량이 미래 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므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통합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으로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2).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교육과정에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특히 역량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정부산하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다(Ko, 2009; So, 2007; Shon, 2006; Yun et al, 2007; Han et al, 2016; Hwang, 2017; Lee, 2018). 이들 연구는 대부분 역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역량의 의미와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핵심역량과 교과역량과의 관계도 규명한 연구도 있었다(Han et al, 2016).

역량개념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의 어떤 능력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조작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과제수행 상황에 얽혀있는 복잡한 맥락적 요소들을 읽어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전략, 가치 등을 선택, 활용해가는 인지적, 반성적 성찰 능력을 의미한다(Park, 2009, 73-75). 역량은 분절된 지식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Lee et al, 2017, 15). 역량이라는 능력은 다양한 인간 특성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능력, 실제 수행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 특정 맥락의 요구와 관련된 수행 능력,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Yoon et al, 2007, 25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은 교과를 통해 길러주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이 교과역량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과 같은 내용체계가 정비되었으며 내용 체계에 따라 성취기준이 개발되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일러두기'). 따라서, 성취기준에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고,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음악역량 함양에 가까워진다. 음악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하는 음악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다.

음악 교과는 다른 주요 교과에 비해 교과의 틀이 유연하고 입시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우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교과이다. 음

악교사도 달라진 교육과정에 걸맞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음악교사의 역량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역량은 음악교과 역량 6가지이지만 음악교사의 역량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역량의 의미에서도 무엇무엇의 능력으로 역량이 표현되었듯이 음악교사의 역량은 역량이라는 단어보다는 능력 또는 전문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있어서도 ‘competency’라는 단어는 음악적 자질(music competencies), 교수기준(teaching competencies)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eog, 2016, 25). 이 연구의 제목인 ‘음악교사 역량 강화’도 ‘음악교사 전문성 신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음악교육에서 전문성은 학생의 훈련기간 동안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 정의되고 성공적 음악교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전문성은 어떤 기술 개발이 장래의 음악교사에게 필요한지 무슨 과목이 그러한 기술을 최상으로 촉진해 주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Smith, 1995, 155).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음악적 능력과 교수기술이며 학생을 가르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교실통제 요령이나 대화하는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Kim, 2004, 11). 전문직에 대한 자질로 교사는 학생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음악과 교육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의 교육사상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MENC, 1972, 7). 한 연구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대부분의 음악교사들은 음악 그 자체보다는 방법론적인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onway, 2002, 20).

음악교사의 계획안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수준과 양, 우선순위의 결정, 태도와 가치는 어떻게 정하고 가르치나 등이다(Lehman, 1994, 40). 교사의 음악에 대한 긍정적 느낌은 학생들을 음악에 대한 긍정적 느낌으로 이끌며 음악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은 여러 수준에서 성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음악학습의 단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각 수준에서의 성취감으로 느낄 수 있다(Kvet & Watkins, 1993, 79). 음악학습에서의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 도와주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학교기준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Byo, 1999, 112). 그러나 연구 결과,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스스로 기본적 교수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행동은 열정이라고 답하였다(Teachout, 1997, 49).

미국음악대학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chools of Music)에서는 음악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7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자주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적·문화적 유산의 일부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

㉔학부모, 동료, 행정가에게 음악교육의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㉕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이나 동료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㉖다른 교과목의 방법,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㉗음악성과 교수기술을 개선하는 자세 등이다(NASM, 2008, 95). 이들 자질을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연결하면 ㉑,㉒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 ㉓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음악적 감성 역량, ㉔,㉕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자기관리 역량, ㉖은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공감하는 음악적 소통 역량, ㉗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음악정보처리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결은 해석 상 여러 가지 역량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역량과 자질을 연결하였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비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집단의 참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통적인 주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서로 나누며 이해와 상호작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FGI의 특징이다.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며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연구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Kim, 2018, 8). 또한, FGI 응답 내용은 문항으로 설명되지 않는 개별적 사례와 교육 경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의 수렴을 통해 연구의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도록 한다.

FGI 실시를 위해서 음악교사들을 교육경력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1은 교육경력 1년-5년, 그룹 2는 6년-10년, 그룹 3은 11년 이상으로 음악교육에 관심이 있는 음악교사로 선정하였다. 교사 선발방식은 사립학교에 응모하여 교사가 되는 방식과 중등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교사가 공립학교를 배정받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교사 선발방식을 고려하여 각 그룹 중 최소한 1명은 중등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켰다. 임의로 선정된 연구대상들은 중학교 재직 7명, 고등학교 재직 6명으로 총 13명이며 2019년 7월에 FGI를 실시하였다. FGI 참여자 정보와 실시 일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GI Subjects and Date

	Group 1	Group 2	Group 3
Subject	High School 5(Y) High School 3(Y) Middle School 3(Y) Middle School 2(Y)	High School 10(Y) High School 6(Y) High School 9(Y) Middle School 8(Y) High School 9(Y)	Middle School 12(Y) Middle School 13(Y) Middle School 17(Y) Middle School 20(Y)
	1year-5years(4N)	6years-10years(5N)	over 11years(4N)
Date	July, 2019		

FGI 문항 구성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 그룹의 교사 1명씩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악역량의 인지 여부, 수업에서의 적용 여부, 음악역량 반영을 위한 교사 자신들의 노력 여부 등을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그 역량을 육성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역량의 의미 역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동일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의 역량과 교사의 역량은 다르게 해석되어졌고 면담에 참여한 음악교사들도 교사의 역량은 일반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답변하였다.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음악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수업이나 교과 재구성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통일하였다. 교사에게 있어서는 교과 밖 음악역량도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토론 결과를 문항 구성에 반영하여 FGI 질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도록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업 역량의 범주에 생활 지도와 행정 업무, 타 교과 연계 가능성을 질문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음악교사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담임과 행정 업무를 수업과 병행하여 수행한다. 음악교사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뮤지컬, 합창대회, 축제와 같은 음악 행사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음악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과와 업무, 담임 등의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때 교사 역량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음악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음악교사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음악 교과의 방향에 가까울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인지하는지, 핵심역량을 수업에 적용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는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사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교과 수업 외의 활동에서 음악교사들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 역량과 관계된 다양한 내용을 경력이 비슷한 음악교사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FGI 질문 문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역량에 관한 이해 및 이해 증진 방안, 두 번째 부분에서, 음악역량을 반영한 참여형 수업 설계 및 교과 재구성, 세 번째 부분에서, 교과 수업 밖에서 요구되는 음악 교사 역량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역량 이해 및 이해 증진 방안을 알아보는 문항이며 이에 관한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원직무연수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연차 적용된 이래로 2020년 3월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 적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또한 2018년부터 검인정 모두 적용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사의 재교육 연수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실시된 음악교사의 역량 및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직무 연수는 그 교육적 요구를 뒷받침 할 만큼 양과 질 모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 및 역량 관련 직무연수의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한 음악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하는 교사의 수업 능력과 관련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악적 활동과 문화 예술 향유 경험의 편차가 큰 교과로,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에도 이러한 격차가 그대로 반영된다. 음악교사는 이렇듯 교육 여건에 맞추어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교사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개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와 책자를 학교급에 따라 배포하였는데, 이를 활용한 역량 중심의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포된 자료에 대한 음악교사의 반응은 다음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또한, 교과 간의 연계·융합 수업 및 타 교과의 연계를 도모할 때 필요로 느끼는 내용도 질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음악교사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교과 밖 음악역량에 관한 것이다. 중등학교에는 평균적으로 1~2명의 음악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위학교에서 각종 음악 관련 자유학기제 음악 수업, 음악중점학교, 문화예술지원사업, 합창대회, 축제, 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거나 담당하고 있다. 음악역량이 필요한 업무이외의 수업

능력을 넘어서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교사가 현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해보고 음악교육학적 관점에서 음악역량과 연관 지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사에게 필요한 교과수업지도 능력과 생활지도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전국의 모든 초중등교원은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는다. 음악교사도 예외는 아닌데, 교원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반교사 평가 영역·요소·지표를 살펴보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평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즉, 음악 교사는 음악 교과 수업 외에도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 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 습관 및 인성 지도를 우수하게 해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논하기 이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영역·요소·지표는 교육이 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 문항에서 이와 관련하여 음악 교사의 교과수업지도와 생활지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학생과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영역의 지도 능력을 요구받는지를 질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음악역량 이해

“음악역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모든 면담자들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음악역량 6가지가 무엇인냐고 하였을 때는 대부분 선뜻 답하지를 못하였고 한 두 가지씩 서로 보완하면서 그룹 면담에서 6가지를 모두 찾아내서 답하게 되었다. 역량의 의미가 무엇인냐는 질문에서는 제각기 다른 답변을 하였으며, 연구자의 유도로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정도로 의견을 모았지만 명확하게 답변하는 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6가지 음악역량 자료를 배포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그룹 2의 3명, 그룹 3의 2명의 교사들은 잘 안다고까지 대답하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인냐는 질문에서는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느끼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정작 역량의 의미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은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학생의 역량과 구별하여 대답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일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거 같아요.”(그룹 1, A교사)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교사들의 역량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6가지 음악역량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음악교사들은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그룹 3, M교사)

“음악교사들은 음악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능력, 자질,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그룹 2, E교사)

역량의 의미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5번 문항인 “학습지도 시 음악 역량을 반영한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모든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을 고려한 수업설계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음악교사들 스스로 잘 실행한다고 생각하여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 5번 문항의 하위 문항까지 세세하게 답변을 하였지만 처음에 역량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에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적용은 하지 않고 적용을 하려고 노력중인 교사가 그룹 1에서 1명, 그룹 3에서 1명이었고 그룹 2에서 2명, 그룹 3에서 1명, 이 3명의 교사만 현재 적용 중이라고 답하였다. 그룹 3의 한 교사는 역량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이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은 잘 못하고 있어요.”(그룹 1, C교사)

“교과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고, 수업을 통해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그룹 3, L교사)

“잘 알고 있으며, 음악과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룹 2, H교사)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낯설고 현장에서 잘 실천하고 있지는 않아요.”(그룹 3, K교사)

음악역량 또는 교육과정 관련 직무연수는 그룹 1은 한명도 없고 그룹 2와 그룹 3에서 한명씩만 직무연수를 이수하였다.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관련 직무연수는 그룹 1에서 1명, 그룹 2에서 2명, 그룹 3에서 2명 등 면담자 그룹 고르게 5명의 교사들이 역량기반 평가나 과정중심 평가에 참가하였다. 그룹 1에서 2명, 그룹 2에서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역량 관련 직무연수보다는 일반적인 직무연수인 진로지도,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에 참가하였다. 특히 그룹 3의 교사들은 음악역량 관련 연수에는 1명

만 참가하였지만 일반적인 직무연수에는 전부 참여를 하였다. 교사들에 따라 적합한 연수가 없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고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 각각 30시간 직무연수를 받았습니다.”(그룹 2, G교사)

“과거에는 온라인 연수를 한 적 있지만 요새는 마땅한 연수가 없네요.”(그룹 3, K교사)

“혁신학교 리더과정을 이수해서 학교 행정 업무 처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룹 3, M교사)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창의적인 교수학습 전략 세우기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둘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연수여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룹 1, A교사)

2.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

음악역량의 이해 영역에서는 역량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든 교사들이 안다고 답변한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 영역에서 교사들은 새롭게 시행된 교육과정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자신들의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음악 역량을 반영한 교수학습소재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였다. 학생의 흥미를 반영하여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고 구성하였으며 특히 그룹 1에서 1명, 그룹 2에서 2명, 그룹 3에서 3명의 교사들은 프로젝트(랩, 뮤지컬, 국악, 컵타, 합주 등) 수업을 많이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대중음악수업을 지도하는데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생 활화 영역’을 음악역량과 연계하여 지도합니다.”(그룹 2, E교사)

“다양한 음악역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그룹 2, F교사)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과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룹 1, D교사)

“10-16차시 분량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모든 역량이 반영되도록 음악수업을 재구성 하는데, 자기주도학습, 모둠별 학습 및 협력 활동, 자기 성찰 및 동료평가, 프로젝트별 포트폴리오 작성, 참여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역량이 성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그룹 3, J교사)

“음악역량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기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3그룹 고르게 협력학습으로 모둠활동을 하였으며 수준차를 고려한 학생 멘토링, 자기주도학습, 플립러닝, 포트폴리오 등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협력학습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하였고 그룹 1에서 1명, 그룹 3에서 1명 등 2명의 교사는 음악역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는 시수의 부족으로 최대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협동학습 수업을 하고 있으며 플립러닝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룹 2, I교사)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고등학교 급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음악과목에서의 협력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교과시간 내에 이루어질수록 협력학습 및 참여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그룹 2, E교사)

“음악역량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기능을 딱히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교과서 위주로 악곡을 살펴본 뒤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다장조부터 단계적으로 정하거나, 계절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편이에요.”(그룹 3, K교사)

“음악역량을 반영한 학습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교육경력이 낮은 그룹 1은 결정권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교육경력이 높은 그룹 3의 경우에는 시행하고 싶을 때 다른 교과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학기 초에 논의한다고 하였다. 그룹 2의 3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입목적 시스템 운영으로 학습시간 변경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그룹 1에서 1명, 그룹 2에서 1명 등 2명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만 블록타임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라 학습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그룹 2, F교사)

“학습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어 전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유학기제에서는 블록타임으로 음악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해요”(그룹 1, D교사)

“음악역량과 성취기준을 반영한 수업 설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성취기준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량 반영 수업 설계에서는 그룹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룹 1은 1명을 제외하고는 성취기준만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룹 2는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성취기준과 역량을 고려해서 수업설계를 한다고 하였다. 그룹 3의 2명은 성취기준과 음악역량을 둘 다 반영하고 2명은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역량을 고려하는 경우 그룹 1에서 역량을 반영한 교사는 교육과정 작성 시 또는 평가계획서 자체에 역량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이었으며 그룹 2의 교사 1명도 연간 교육과정 서식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하였다. 그룹 3의 교사

는 명시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취기준을 다루다보면 역량도 같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업설계 시 음악역량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성취기준은 고려하고 있어요.”(그룹 1, C교사)

“수업설계를 할 때 음악역량과 성취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교 연간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재구성할 때 역량과 성취기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룹 2, H교사)

“수업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선정한 단위 또는 주제를 왜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 주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여 수업을 디자인한다면 음악역량과 성취기준은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그룹 3, J교사)

“교과 간 연계 및 융합 수업 설계를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있어서는 면담 교사 모두가 융합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 자체에서 융합 수업을 권장하기도 하며 교과 간 협의를 통해 학기 초에 교과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역사, 미술, 체육 등 전 교과에 걸쳐서 융합 수업을 하고 있었다.

“2월 신학기 대비 집중 준비기간 중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과 간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 내에서 적절히 협의하고 계획, 운영하며 교과 이외의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것을 스스로 융합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그룹 2, H교사)

“음악교사가 현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운영하고 있다면, 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사항은 수업의 목적에 따른 내용 구성과 수업 소재 및 주제의 적절성이라고 하였다. 3그룹 모두 고르게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으며 학생의 흥미와 반응, 수준차를 고려하고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등 다양한 내용을 모든 그룹이 유사하게 답하였다.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진행을 고려하여 설계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참여수업=노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육적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그룹 2, G교사)

“소재와 주제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표현하는 것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음악적 지식이 바탕이 되는 수업은 학생 참여형으로 구성하기에 제한이 있어요. 음악실 환경도 적절치 않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효율성이 떨어져요.”(그룹 3, M교사)

“합주와 중창수업에서는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해, 배려, 리더십,

협력, 의사소통능력,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떠한 역량이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는데 다양한 자신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혼자자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사회에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운영합니다.”(그룹 1, A 교사)

“수업에 대한 관심, 열정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그룹 2, I교사)

“음악 수업 내에서 활용이 용이한 역량과 타 교과와의 연계 융합 수업으로 활용이 용이한 음악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중 음악 수업에서는 그룹 1의 1명과 그룹 2의 1명을 제외하고 음악적 감성 역량과 음악적 소통 역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룹 1의 교사는 멀티미디어 활용이 중요하며 음악정보처리 역량을 선택하였고 그룹 2의 교사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선택하였다. 타 교과와의 연계 융합 수업에서는 그룹 3의 2명의 교사가 음악정보처리 역량을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과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그룹 3의 교사는 모든 역량을 다 활용한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능력이 좋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음악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므로 음악정보처리 역량이 필요합니다.”(그룹 1, A교사)

3. 교과 밖 음악역량

이 영역의 질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교사 자신의 역량을 별개의 역량으로 생각하고 답하였다. 오히려 교사의 역량은 학생의 역량과 달리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악적인 능력보다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답하였다. “단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룹 1에서 1명, 그룹 3에서 1명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처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학생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 2명의 교사는 학생과 동료교사들과의 소통과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의 핵심역량 중 음악적 소통 역량과 연계할 수 있겠다.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 파악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그룹 1, B교사)

“예산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동료교사, 외부강사, 학생, 학부모

등 관련된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그룹 2, H교사)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3대 교육공동체로 구성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부재 및 오류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를 떠나 교사는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경청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룹 3, L교사)

“단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고려할 때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각 그룹의 1명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사들이 기획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그룹 1에서 2명, 그룹 2에서 3명, 그룹 3에서 2명 등의 교사들이 관계자와 지역사회와의 협업 시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그룹 1에서 2명, 그룹 2에서 3명, 그룹 3에서 3명 등의 교사들은 음악 관련 행사이므로 음악적 전문성이나 음악능력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능력, 역량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이들 중 그룹 2의 1명과 그룹 3의 1명 등 2명의 교사들은 음악적 능력만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리더십,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 음악적 소재를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그룹2, H교사)

“사고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동아리, 합창대회, 뮤지컬 등을 펼칠 수 있는 열정과 전문성, 기획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행사라면 동료교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룹 3, J교사)

“전문적인 연주능력 및 티칭, 지역사회와의 협업능력이 필요합니다.”(그룹 1, A교사)

“동아리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과 소통하며 친화력도도해야 합니다. 음악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교부받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룹2, E교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곡선택이 제일 중요해요.”(그룹 3, K교사)

“음악교사에게 필요한 교과수업지도 능력과 생활지도 능력을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룹 1에서 1명, 그룹 3에서 2명 등 3명의 교사만 5:5로 동등하여 구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특히 그룹 3의 교사는 2가지 능력 자체를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사 모두 교과수업지도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교과수업지도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는 능력은 교과수업지도 능력이 많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능력은 생활지도 능력이 많았다. 한 교사는 음악교사는 교과수업지도 능력이고 담임은 생활지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교사를 구분지어 답하기도 하였다.

“교과수업지도 능력과 생활지도 능력을 굳이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수업을 통해, 수업 안에서 삶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수업과 모든 교과의 목적이기에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그룹 3, J교사)

“교과수업지도 능력은 음악교사의 기본적 역량으로 초임 교사부터 5년차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수업지도 능력과 생활지도 능력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데, 생활지도 능력이 곧 학생과의 소통과 친밀함으로 이어지며, 생활지도 능력을 갖추었을 때, 교과수업지도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그룹 2, E교사)

4. 논의

현장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음악교사들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알고 있었고 수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21세기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위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악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단어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역량의 의미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고 제각기 답변을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된 역량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립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서 해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Park, 2009; So, 2007; Yoon et al, 2007; Lee, 2018). 또한 학생 역량과 교사의 역량을 별도로 생각하고 교사의 역량은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역량기반 직무연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그룹 1은 교육경력 5년 이내로 중등교사임용시험 경험 때문인지 직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그룹 역시 대부분의 교사가 역량 관련보다는 일반적인 직무연수에만 참여하였는데 이는 필요성 인식 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연구를 통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셋째, 모든 교사가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어온 활동 중심 수업과 학생중심 교육과정, 수행평가로 전환된 평가 방법 개선에 기인한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이 학생들을 활동적으로 만든다(Rosenberg, 2009, 10).

넷째, 음악역량보다는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 설계를 하고 있었다.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시 성취기준을 고려하지만 역량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수업의 목적, 주제, 학생의 흥미, 수준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역량과의 관계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음악교사의 능력에서 음악적 전문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고 행정업무처리 능력이나 기획 능력, 소통 능력을 가장 필요한 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과수업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였다.

여섯째, 그룹별 비교결과에서는 그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교적 고르게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첫 번째 영역인 음악역량 이해 영역에서는 직무연수 참여 여부만 그룹 1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 1은 교사 임용이 5년 이내의 교사 그룹으로서 취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임용된 지 시간 경과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적응 기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최근의 자료이므로 아직까지는 직무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서 기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인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 영역의 하위 문항 중 수업 설계 시 성취기준과 음악역량의 반영여부에서는 그룹 1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악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설계하고 있었다. 세 번째 영역인 교과 밖 음악역량 영역 중 음악교사의 능력의 비중여부에서는 그룹 2의 교사들은 모두 교과지도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룹 3의 교사 중 1명을 제외하고 교과지도능력이나 생활지도능력 비중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는 교육경력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라서 특정 능력의 중요성이 수업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는 학교 현장의 음악교사들에게 FGI를 실시하여서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론적 배경으로 역량의 의미와 핵심역량, 음악교사의 역량을 고찰하였다. FGI 문항은 음악역량 이해, 참여형 수업 및 교과 재구성, 교과 밖 음악역량 등 3영역으로 나누어서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중등음악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역량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하다. 교사들의 면담 결과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역량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학생의 역량과 교사의 역량 역시 '역량'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음악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방침과 참여형 수업 설계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방법과 학습소재를 선정하여 수업을 운영하지만 역량을 반영한 수업은 아니므로 음악역량을 적용해서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침이나 세부 운영 안내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음악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능력을 토대로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방향을 마련하고 역량 기반 직무연수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음악교사들은 음악역량을 반영한 수업을 구성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교사연수를 인적, 물적 지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References

- Byo, S. J. (1999). Classroom teachers' and music specialists' perceived ability to implement the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 111-123.
- Choi, E. J. (201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Master thesis, Ewha Univ.
- Choi, E. S., H. K. Shin, & J. W. Chung. A study of a teac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music creativity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169-191.
- Choi, M. Y. (2012).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usic teacher 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163-184.
- Choi, M. Y. (2015).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analysis of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music teaching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2), 163-184.
- Choi, Y. A. (2015). *A case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Master thesis, Seoul Univ.
- Chung, J. W., Jung, E. G., & Oh, J. H. (2013). A FGI study for exploring school music teachers' recognition to competency-based music education and its relation to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1(3), 83-106.
- Conway, C. (2002). Perceptions of beginning teachers, their mentors, and administrators regarding preservice music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 20-36.
- Erbes, R. L. (1992). Certification practice and trends in music teacher education. (4th Ed.). Reston,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Han, H. C., Kim, K. C., Lee, J. Y., & Chang, K. S. (2018). Exploring issu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1(3), 1-24.
- Han, H. C., Kim, Y. E., & Lee, J. Y. (2016). A study of the arguments related to general capacities as an educational aim: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key competency and subject competency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2), 1-18.
- Han, H. C., & Lee, J. Y. (2017). Comprehension of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by comparison with the discipline-based curriculum and the understanding by desig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3), 203-221.
- Han, H. J., Kim, G. C., Jang, G. S., & Lee, J. Y. (2017). *A study on the design pla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cultivation of core competency of 2015 revised curriculum*.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17-2).
- Hong, W. P. (2017). Revisit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Korea: Focused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1), 239-254.
- Hong, W. P., & Kwak, E. H. (2014). A case study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wo secondary teachers' instructional refor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2), 163-186.
- Hong, W. P., & Lee, G. H. (2010). *Case studie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e cases of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10-2).
- Hong, W. P., & Lee, K. H. (2011).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practice: Based on the case of Quebec, Canad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1), 67-86.
- Hwang, G. H. (2017). Critical review of issues in general competence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3), 247-271.
- Ko, Y. J. (2009). Competency as a practical 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5, 1-26.
- Koo, K. E. (2015).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spectives on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22(1), 1-23.

- Kim, C.H., Um, M.Y., Park, H.J., Noh, J.Y., Kim, K.H., Lee, K.H., Park, L., Kim, J.M., Lee, S.D., Park, S.Y., Park, J.H., Hwang, H. J.(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indicators and indexes in Korea (II): Development of student competency index*.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Paper (RP 2013-23).
- Kim, M. S. (2004). A study on the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Music Research*, 11, 1-22.
- _____ (2018). A direction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based on the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20.
- Kvet, E. & R. C. Watkins. (1993). Success attributes in teaching music as perceived by elementary education majo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 70-80.
- Lee, G. H., Gwak, Y. S., Lee, S. M., & Choi, J. S. (2012). *Developing national curriculum for cultivating core competencies for future societ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12-4).
- Lee, G. U., Jeon, J. C., Heo, G. C., Hong, W. P.,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design pla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to improve core competence of future Korean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09-10-1).
- Lee, H. J. (2010). Issues of the competence-based curriculum for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3), 151-171.
- Lee, J. U., Gu, N. U., & Lee, I. H. (2016). *Student evaluation in the classroom for core competency development: Focused o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ompetenc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16-10).
- Lee, J. Y., Lee, K. H., Lee, B. C., & Ka, E. A. (2017). Case analysis of competency-based school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Focused on curriculum research school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 1-30.
- Lee, S. E. (2018). Exploring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a competence-based curriculum in an age of uncertainty: An “ont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45-69.

- Lee, S. H., Park, D. Y., Park, S. U., Choi, I. B., Gu, N. U., & Lee, E. G. (2014). *Direction of education evaluation policy to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of future social core competenc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RRC 2014-14).
- Lee, S. M. (2012). A case study o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in Hesse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1), 151-174.
- Lehman, P. (1994). *Writing standards for music: The vision for art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ston, VA: MENC.
- Lim, Y. N. (2016). A case study on teacher support for realiza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Focused on the New Zealand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2(3), 59-88.
- Mayesky, M.(2015). *Creativ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Stamford, CT: Cengage Learning.
- Ministry of Education(2015).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80. [Supplementary 1]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86). *The school music program: description and standards*. (2nd Ed.). Reston, VA: MENC.
- _____. (1972). *Teacher education in music: Final report*. Washington D.C.: MENC.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4). *Perspectives on implementation: Arts education standards for America's students*. Reston, VA: MENC.
- Myers, D. & C. Bowles. (1995). *General Music Education: College through Adulthood. Toward Tomorrow: New Vision for General Music*. In S. L. Staffer (Ed.). Reston, VA: MENC.
- Namgung, J. Y., Kim, Y. B., Park, G. H., Jung, D. C., & Park, H. J. (2015). *KEDI student competency research: Developing and validating survey tool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Paper (RR 2015-31).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2008). *NASM handbook 2009-2010*. Reston, VA: Retrieved Dec. 22. <http://nasm.arts-accredit.org>.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for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ublished online. from <http://www.deseco.admin.ch>.

- Paik, N. J. (2014). Review of subject-specific competency based standards: Focusing on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Australia, Canada, Singapor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63-194.
- Paik, N. J., & Ohn, J. D. (2014). The meaning of standards and performance in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7-46.
- Park, M. J. (200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and its cri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4), 71-94.
- Roh, S. H. (2014).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mpetence-based curriculum of GPOE.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8(1), 23-42.
- Rosenberg, R. (2009). Tools for activation materials and tasks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English Teaching Forum*, 47(4), 2-11.
- Ryoo, S. C. (2012). An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as the foundation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3), 51-69.
- Seog, M. J. (2016). Music teacher standards review for music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1(2), 23-37.
- Shon, M. H. (2006). Competence, and everydayness of practical knowledge as its practical found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4), 1-25.
- Smith, C. M. (1995). The status of undergraduate string teacher education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 139-156.
- So, K. H.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 So, K. H. (2009). Curricular-historical base and its liberal nature of competence-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1), 1-20.
- So, K. H., Kang, J. Y., & Han, J. H. (2013). Review on competency-model for subject curriculum: Focusing on curriculum of England, Germany, and Canad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3), 153-175.
- So, K. H., Lee, S. E., & Park, J. Y. (2007). Review on curriculum in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7(4), 105-128.
- Teachout, D. J. (1997). Preservice and experienced teacher's opinions of skills

and behaviors important to successful music teaching.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 41-50.

Yoon, J. Y., & Ohn, J. D. (2016).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 in terms of the holistic nature of competenc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2), 19-45.

Yun, C. I., Kim, M. S., Youn, S. K., & Park, M. J. (2007).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competence as human 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3), 233-260.

Yun, J. H., Kim, E. Y., Choi, S. J., Kim, G. J., & Hwang, G. H. (2016). *OECD education 2030: Status analysis and future tasks for future education and competencie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sue report (OR 2016-10).

Received: 30 August 2019, Reviewed(Revised): 4 October(8 October) 2019

Accepted: 29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Misook, Kim: E-mail: laughkim@smu.ac.k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Korea